

지용(地涌)의 웃는 얼굴이 빛나는 창립기념일

2021년 11월 18일

창가학회사회헌장(創價學會社會憲章) 제정(制定)

제80회 총무회에서 의결 – 회칙 개정과 새 총무·총무보 선출도

이케다 선생님이 전 동지에게 와카(和歌)

창가학회(創價學會)는 오늘 18일, 개가(凱歌)의 창립기념일(創立記念日)을 맞이했다. 순교(殉教)한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선생님의 상월기일(祥月忌日)이기도 하다. 이날을 기해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日蓮大聖人御書全集)』신판(新版)이 발간. 「창가학회사회헌장(創價學會社會憲章)」이 제정(制定)되었으며 여자부(女子部)와 일체가 된 신(新)·여성부가 시동(始動)한다.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겹겹이 의의(意義)가 깊은 ‘11·18’을 기념해, 전 동지(同志)에게 와카(和歌)를 읊어 선사했다.



第3代会長
池田大作先生



第2代会長
戸田城聖先生



初代会長
牧口常三郎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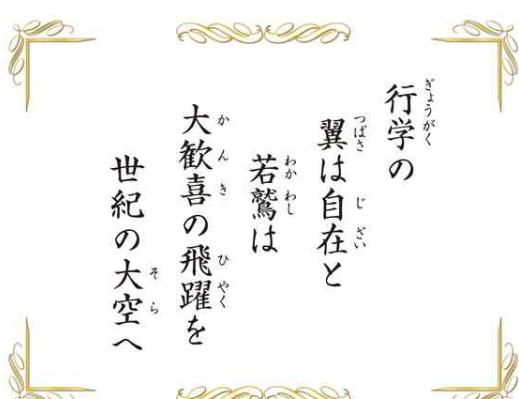
이케다 선생님이 전 동지에게 보낸 와카(和歌)



어서(御書) 근본으로 살아
싸워 승리하는
사제의 여정
보광 빛나는
지용의 미소여



영부제일(閣浮第一)
인화(人華)의 스크럼은
천사(天使)인가
행복(幸福)의 대지(大地)에
평화(平和)의 문화(文化)를



행학(行學)의
날개를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젊은 독수리는
대환희(大歡喜)의 비약(飛躍)을
세기의 대공(大空, 하늘)에

제80회 총무회(야마모토 다케시 의장)가 어제 17일 오후 3시부터 도쿄(東京) 신주쿠 구(新宿区)의 금무회관(金舞會館, 창가문화센터 내)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2022년 ‘청년(青年) · 비약(飛躍)의 해’의 활동방침을 가결. 이어서 대표 임원인 하세가와(長谷川) 이사장으로부터 레이와(令和) 2년도의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승인되었다. 또한 여성부(女性部)와 여자부가 일체(一體)가 되어 새롭게 출발함에 따른 「창가학회회칙(創價學會會則)」의 일부 개정이 제안(提案)되어 통과되었다.(11월 18일 시행)

덧붙여 하라다(原田) 회장으로부터 「창가학회사회헌장」의 제정에 대한 제안이 있어, 전원의 찬동(贊同)으로 결정됐다. 이 헌장은 2017년 세계교단인 학회의 최고 법규로 제정된 「창가학회회헌(創價學會會憲)」에 따라 학회의 사회적 사명과 행동 규범을 명문화한 것이다.

‘세계시민(世界市民)의 이념(理念)’ ‘적극적(積極的) 관용(寬容)의 정신(精神)’ ‘인간 존엄(人間尊嚴)의 존중(尊重)’을 드높이 내걸고 인류가 직면한 위협에 도전해, 세계의 평화 · 문화 · 교육에 공헌하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 헌장은 11월 18일 시행된다.(3면에 전문과 해설)

또한, 총무(總務) · 총무보(總務補)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 재임 · 신임에 대한 제안이 있어 결정되었다.(3면의 본부 인사에 신총무 · 총무보를 게재)

참의회(參議會)를 개최

총무회에 앞서 제62회 참의원(모리타 야스오 의장)이 어제 17일 오후 2시 반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학회본부 별관에서 실시되었다. 하라다 회장으로부터 자문이 있던 2022년의 활동방침, 창가학회회칙의 개정, 신임 총무 · 총무보의 선출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는 취지와 답신이 있었다.